

구로공단 노동자 김은숙 씨

김은숙(24)씨는 전깃줄과 전코드를 생산하는 서울 구로공단 KDK 공장의 일 잘하고 착한 노동자이자 웅변과 당으로 동료들을 사로잡는 노조조합 선전부장이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라 지루하냐구요? 물론 처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러나 이제 우리사회에서 누가 해야 할 꼭 필요한 일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겁니다. 일이 끝나면 또 ‘창적인’ 노동조합 일이 기다리 있으니 신바람이 납니다.” 70년대부터 생산직 여성노동

여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하루 12시간씩 일했지만 야근수당까지 다 합쳐서 한달 봉급은 20만원이 겨우 될까말까 했어요. 나의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모든 노력을 다 바친 대가로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막연히 들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로서의 의식이 조금씩 생기면서 88년 6월 결성된 노동조합에 여성부장으로 뽑혔다.

“저는 어용의 비난을 받으면서 시작했습니다. 노동조합 결성을 반대하는 회사쪽의 논리가 그럴듯해 조합 간부들을 쫓

고 있습니다.”

임금투쟁에 들어가기전 식당에 써붙인 ‘기혼여성노동자 결의문’을 상무가 떼버리자 아줌마들과 함께 상무실로 찾아가 항의, 종이값, 매직펜값 2천원을 배상금으로 받아내면서 김씨는 동료 아줌마 노동자들의 열렬한 성원과 지지를 받는 노조간부가 됐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여성의 임금이 4~5만원씩 적습니다. 노조활동을 하면서도 여자가이기 때문에 의견이 묵살되는 것을 경험할 때면 화가 솟구칩니다.”

결혼을 하게돼도 ‘노동운동을 포기하라’고 남자가 요구하면 그 남자를 포기하겠다는 김씨는 “여성이 해방되어야 진정한 노동해방이 가능하다”고 힘주어 말하기도 한다.

연극배우의 꿈 대신 문학에 취미를 붙인 그가 쓴 시 ‘김장’

농성하다 성숙된 노동자의식 깨우쳐

연극배우 꿈 버리고 단순노동에도 큰 보람

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들은 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운의 주역을 맡아 왔지만 결혼 함께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출해 버리기 일쑤였다.

그러나 80년대 들어 생산직 혼여성노동자의 수가 대폭어나고 노동조합운동이 활발지면서 결혼이나 진학으로 분상승을 기대하기보다 노동조합을 통해 일할 만한 일터를 꾸어 평생 당당한 노동자로 아가려는 여성들이 크게 늘 있다.

경기도 파주군에서 농사를 는 부모 밑에서 자란 김씨는 오는 날 외에는 쉬는 모습을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 는 부모님이 왜 늘 가난한지 유를 알 수 없었다.

“빨리 취업해 돈벌자”는 생각서 종합고등학교 상과반에 학했다. 1학년 봄 체육대회 서는 5km 마라톤대회에서 1 을 하게 돼 군 대표로 뽑혀 가기까지 했지만 마음 속에 은 꿈은 연극배우였다.

김씨는 고교 졸업후 극단 ‘창극장’에 들어가 스태프, 조명, 음향 등의 일을 다치는대로 다가 전문적으로 공부해 해겠다는 생각에 대학시험준비 했지만 낙방의 쓴물만 마셨

“이 공장에 취직해서 처음 1 동안은 친구들도 안 만났습다.” 연극배우의 화려한 꿈 가졌던 자신이 초라한(?) 동자의 모습으로 몰락했다는 참한 느낌에서 오랫동안 벗



아내는 일에 앞장서서 서명까지 했었으니까요.”

그러나 89년 4월27일부터 57 일간 회사쪽의 직장폐쇄에 맞서 벌인 장기농성을 통해 김씨는 성숙한 노동자의 의식을 갖게 된다.

“노동조합이나 노동법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랐어요. 뭔가 부당하다는 생각에서 노조활동을 하다가 배운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현실에서 나 혼자 벗어나기보다 그 현실을 인정하고 변화시켜야겠다는 의지를 갖게된 겁니다. 이제 공부도 체계적으로 해보

의 한구절은 그의 노동자로서의 자각과 힘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민주노조 싹트우던 그때처럼 여러 손들이 모여 김장을 한다/ 등글넙적한 합지박에 팔뚝만큼 굵은 조선무우 채 썰어 넣고/ 남부경찰서 앞에서 먹었던 최루가스보다 매운 고추가루로 양념을 버무린다/ 분노를 버무린다/ 알맞게 숨죽인 배추 한잎 한잎에 차곡차곡 양념을 넣는다/ 날아가 버린 김장보너스를, 플레카드를, 대자보를 콕콕 채워 넣는다.”

〈김미경 기자〉